

# 노인연구 활성화를 위한 연구성과 분석

홍 성 희(계명대 교수)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은 노년기에 겪게 되는 소득 상실, 건강 악화, 역할 상실, 고독 등 3중, 4중의 문제점을 우려하며 노후생활문제에 대한 인식과 실질적인 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더구나 우리나라의 빠른 고령화 속도와 부모부양의식의 약화 등의 상황을 감안할 때 노후 준비는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노인 대상 연구들은 노년기의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면서도 다양한 문제에 대한 통합적인 접근보다는 각론적 접근을 시도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즉, 가족자원경영학 분야에서 노년기 연구는 일부의 통합적 연구와 노인여가연구, 노인주거연구, 노인경제연구 등으로 대별될 수 있다. 따라서 네 분야의 학회지 게재 논문<sup>1)</sup>을 대상으로 연구결과와 시사점을 중심으로 연구경향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연구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1. 노인연구의 주제

분석대상 논문들의 주제와 연구문제를 통해 추출한 주제어는 다음과 같다(표 1 참고). 노년기를 통합적으로 다루는 연구보다는 분야별 연구가 더 활성화되어 왔으며, 분야별 연구 중에서는 노인여가에 대한 연구가 가장 활성화되었다. 평균수명의 연장과 조기 은퇴로 인해 은퇴 후 생활자금 및 경제적 복지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노인경제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이 분야에 대한 연구성과는 상대적으로 집적되어 있지 않다. 또 노인경제와 노인주거분야의 연구들 중에는 비노인층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도 눈에 띈다. 이는 노년기를 대비한 주거와 경제문제는 단시간 내에 준비되거나 해결될 수 없고 장기적으로 계획되어야 하기 때문에 노인을 대상으로 한 주거새각 및 경제연구가 활성화되지 않은 반면 노년기 여가는 장기계획이나 사전 준비의 대상으로 인식되지 않기 때문에 노년기의 여가행동에 초점을 맞추거나 노년기 생활의 일부로서 다룬 연구가 활성화된 것으로 보인다.

<표 1> 노년기 연구분야의 주제어 및 논문편수

연구분야	주제어	편수
통합적 연구	생활설계(2), 노년기 준비교육(2), 노후생활인식(1)	5
노인여가	여가시간(3), 여가활동유형 및 참여도(4), 여가활동 영향요인(2), 여가생활만족도(5), 삶의 질(3), 여가계약(2), 여가자원(1), 여가기능(1), 여가정책(1)	22

1) 2000년 이후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한국가정관리학회지, 대한가정학회지를 중심으로 하고 한국노년학의 일부 논문과 편수가 적은 통합적 연구분야의 경우 2000년 이전 논문을 포함시킴.

노인주거	노인주거계획(3), 공간디자인(2), 노인주거대안(3), 노인주거유형 및 서비스 선호도 및 요구도(3), 노인주거정책(1), 노인주거연구방법(1)	13
노인경제	노인가계의 경제구조(3), 재무관리행동(3), 재무교육(1), 취업활성화(3)	10

## 2. 노인연구의 결과와 시사점

각 연구분야에서 대표적인 논문들의 주요결과와 시사점을 중심으로 노인연구의 경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통합적 연구

노인 또는 노년기에 대한 통합적 시각으로 접근한 연구들은 노년기에 직면하는 경제적 문제, 건강, 역할 상실에 따른 여가시간의 증대 등 많은 문제점에 대비하는 노후계획과 이를 위한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

노년기 생활설계에 대한 홍성희 등(1997)의 연구에서는 노년기의 생활의 질 추구를 위해 필요한 시간, 금전, 공간 및 에너지 등의 자원의 보유 및 관리상태로부터 경제생활, 주생활, 여가생활, 가사노동에 문제가 생기는 것으로 보았다. 이때 각 생활문제는 동시적으로, 상호 관련되어 발생하는 경향이 있는 것에 주목하였다. 즉, 개인이 보유한 다양한 자원들이 서로 보완되거나 영향을 미치듯이 노인의 경제생활에 문제가 있을 때 다른 생활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워지며, 경제적 어려움이나 노화로 인해 노년기에는 주생활이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는 등 생활문제 또한 관련성을 갖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노인의 생활문제와 생활계획에 대한 전체적, 통합적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또 연구결과에서 조사대상자들의 문제인식 정도가 가장 높은 영역은 주생활영역인 반면 이 영역에 대한 노후계획수준이 가장 낮게 나타남으로써 노후대책의 미비함과 심각성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최성재(2009)는 중노년층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조사를 한 결과 노후준비의 대상은 경제적 대책, 건강, 여가활동 순으로 인식하였으나 거의 경제적인 것으로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나 일반적으로 노후준비 중 경제적 준비의 비중이 큰 것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고 하겠다.

한편 전길양 등(2000)은 노후에 직면하는 현실적인 문제인 건강, 경제, 고독과 고립, 역할 상실 등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통합적인 노년기 준비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고, 각 주제별로 내용을 구성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최보아와 지영숙(2004)은 은퇴자들의 생활설계교육프로그램을 생활설계기초, 자원관리 및 신체, 심리건강 및 가족관계, 의사소통 및 역할 수립, 노년상 정립의 4개 영역으로 개발하고, 각 주제에 대한 4회의 교육 후 은퇴 후 생활이해수준을 평가한 결과 생활설계기초 영역의 평균점이 21.2%의 증가율을 보여 생활설계에 대한 교육이 실시될 경우 노후생활설계에 대한 의식 수준이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이와 같이 통합적 연구의 결과들은 노후계획에 대한 인식과 준비실태를 보여주나, 노후계획이 노년기 이전부터 시작되어야 할 필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연구대상으로 중년층을 포함하는 연구들이 있어 노년기의 실태를 정확히 보여주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 2) 노인여가연구

노인여가연구는 여가자원으로서 여가시간, 여가시간에 참여하는 활동 및 영향요인, 여가활동참여 결과로서 여가생활만족도 및 삶의 질 등을 주제로 이루어져 왔다.

여가시간에 대한 연구로서 박미석과 이유리(2003)는 통계청의 생활시간조사자료를 분석해 60세 이상 노인의 1일 여가활동유형별 시간은 노인의 개인, 가족, 거주특성에 따른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고, 특히 여성노인이나, 저학력 노인, 무배우 노인들을 위한 여가교육과 프로그램 등의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동일 자료를 분석한 이운정과 정순희(2004)는 55세 이상 노인의 여가생활시간과 하위영역별 시간의 양과 비중, 활동시간대 등을 분석하여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여가활동은 교제활동, 대중매체 이용, 스포츠 및 레저활동, 취미활동의 4개 활동이며, 대중매체 이용시간이나 교제시간은 적은 편이고, 취미활동과 스포츠 레저활동시간은 많다는 결과를 얻음으로써 노인기에는 개인의 취향이나 건강을 위한 시간소비가 많아지는 것으로 보았다.

이기영 등(2006)은 농촌노인의 여가시간을 노동시간과의 관련성 하에서 분석하였는데, 장시간의 농업노동은 여가시간에 영향을 주어 농촌노인의 여가시간은 일반 노인에 비해 적으며, 여가시간을 대부분 TV시청과 같은 미디어에 보내고, 그밖에는 휴식(농번기)이나 이웃과의 교제(농한기)에 소비함으로써 여가 내용에 있어서도 소극적 내지 소모적인 여가에 편중된 특성을 보인다. 따라서 여가의 시간양이나 내용 면에서 볼 때 농촌노인의 삶의 질이 낮다고 보았다.

여가활동참여도 및 유형에 관한 연구로서 김성연과 박미석(2000)은 60세 이상의 서울 거주 노인들의 여가활동참여수준은 전반적으로 상당히 낮으며, 특히 소극적이고 비활동적인 소일활동을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문숙재 등(2002)은 노인의 생활의 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가서비스 사용실태에 대해 전반적인 이용율과 여가활동종류가 한정된 결과를 확인함으로써 여가계약이 많은 것으로 해석하였으며, 노인 자신의 개인적 요인 뿐 아니라 가족요인에 따라 영향을 받는 결과를 통해 여가서비스 이용을 지원해줄 수 있는 지역사회 의 장소 제공, 인적 및 물적 지원,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2000년 사회통계조사의 원자료를 분석한 박미석(2002)은 은퇴노인들이 참여하는 여가활동유형이 주로 TV시청과 단순휴식활동으로, 현재 여가생활에 대해 불만족하는 응답이 더 높았으며 불만족의 주요이유로는 경제적 부담과 건강, 체력 부족인 것으로 확인하였다.

여가활동참여도의 영향요인을 다룬 연구로서 허준수(2002)는 65세 이상 노인의 연령, 교육수준, 월소득, 신체적 건강상태 및 여가비용이 여가활동참여도의 영향요인으로서, 인적 자본이 결핍된 저소득 계층보다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고 건강상태가 양호한 노인들의 여가활동참여도가 높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또 참여하는 여가활동은 TV 시청이나 산책 등 정적 여가활동이 대부분이며, 가족 및 친구관련 여가활동참여가 적고, 75세 이상의 후기노인의 여가활동참여가 적은 점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면서 노인이 가족과 함께 하는 가족통합 여가프로그램의 개발, 후기노인의 여가활동 활성화 방안 등과 함께 노인의 연령, 성별, 교육정도, 건강상태 및 기호에 따라 차등적이며 개별화된 여가활동을 제공할 수 있는 사회적 지원체계를 제안하였다. 박미석(2002) 역시 은퇴 후 노인의 여가활동유형이 성별, 연령, 학력, 배우자유무, 주택소유여부, 거주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참여하는 여가활동유형에 따라 여가생활만족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던 결과를 통해 노인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고려한 여가프로그램의 구성과 운영을 제안하였다. 예를 들어 남자노인이나 연령이 적은 60대 노인에게는 옥외에서의 신체적인

여가체육프로그램을, 학력이 높은 노인에게는 학습형 활동을, 유배우 노인을 위해서는 부부공동참여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다. 김성연 등(2000)은 노인의 여가활동참여정도의 관련 변인으로 사회인구학적 특성 이외에 자아존중감, 여가정보, 여가욕구수준 등 여가자원변인이 더 중요한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다양한 변인들의 관련성과 함께 여가교육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여가활동참여의 결과로서 얻게 되는 여가생활만족도와 삶의 질에 대한 연구들이 있다. 김성연 외(2000)는 노인의 여가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자아존중감, 여가정보, 여가욕구수준 등 여가자원변인이 중요한 것으로 보고하였다. 박미석(2002)의 연구에서도 여가자원인 여가비용, 여가시간, 여가시설의 충족도가 좋을수록 직접적으로는 여가만족도가, 간접적으로는 삶의 질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여가자원의 중요성이 입증되었다. 또 노년기 여가생활이 궁극적으로는 삶의 질을 높여주므로 노년기 여가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노인뿐 아니라 중장년기부터 노후를 소일하는 방식을 개발하고 준비하는 교육이 필요하고 하였다. 대부분의 연구들이 재가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것과 달리 박미석(2005)은 시설 거주 노인을 대상으로 여가활동과 여가생활만족도를 조사하였다. 시설 거주 노인들은 가족의 원조 및 사회와의 접촉이 거의 단절되어 있는 상태로 생활의 대부분을 시설 내에서 지내기 때문에 시설 내 각종 설비와 서비스가 삶의 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 연구에서 시설거주노인들은 성별, 연령, 학력, 입소기간, 시설동료와의 관계, 직원과의 관계에 따라 시설에서 이용할 수 있는 여가프로그램제약정도에 차이를 보였으며, 이러한 제약정도에 따라 여가생활만족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유리와 박미석(2006)은 무료양로시설 거주 노인의 여가동기가 여가활동참여도와 여가만족, 삶의 질 수준에 강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었으며, 여가만족은 삶의 질에 직접적으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시설 노인의 여가 향유와 삶의 질 증진을 위해 여가환경의 조성, 개인적 여가제약요인의 개선, 여가동기의 제고 등 관련요인을 통합적이고 유기적으로 고려하는 방안과 시설노인의 적극적 여가태도를 강화하는 교육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대부분의 연구에서 노년기 여가의 삶의 질 또는 생활만족도 향상에 대한 긍정적 기능을 밝힌 것과 달리 이윤정(2003)은 여가활동이 개인과 사회, 경제적 측면에서 역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즉, 개인의 여가생활이 지나치면 퇴폐적, 향락적으로 될 수 있고, 소극적 활동의 연속으로 나태함과 무력감을 드러낼 수 있으며, 사회적으로는 여가기회나 자원의 불평등으로 노인의 소외현상을 낳아 결국 공동체 여가문화가 점차 쇠퇴할 수 있고, 경제적으로는 고급 여가문화를 모방하려는 심리, 과시적 여가소비, 지나친 여가의 상품화 및 상업화 등의 역기능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노인 여가의 기능적 측면이 순적으로 발생하려면 여가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가능력을 배양해야 한다고 함으로서 여가교육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노인여가에 대한 연구는 비교적 다양한 주제로 활성화되어 있으나 연구결과는 일관된 경향을 시사한다. 즉, 노인의 여가의 소극성과 제약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한편 노년기 여가는 생활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재로 작용한다. 따라서 적극적인 여가태도와 여가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여가교육과 시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 3) 노인주거연구

노인주거의 디자인 및 공간 구성에 대한 연구로서 신영숙(2000)은 노후생활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노인의 행태에 적합한 디자인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미국 텍사스 주 어스틴 소재 3개 서비스주택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시설 선호도와 만족도를 측정하였다. 그 결과 노인들에게 집과 같은 편안한 느낌의 시설주거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분위기가 나지 않도록 건물의 스케일, 집과 같은 마감재료, 실내디자인의 상세한 마감처리, 친밀한 분위기를 나타내는 가구와 악세서리, 방의 용적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또 노인들이 가장 시간을 많이 보내는 자신의 방의 크기와 프라이버시의 부족으로 방에서 활동 장애를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방을 더 크게 하며 1인실로 할 것과 욕구 변화에 따라 개조 가능한 구조로 계획하고, 노인들에게 분명한 방향성과 공간의 성격을 인지시킬 수 있는 디자인이 요청된다고 지적하였다. 오혜경 등(2003)은 미국의 노인주거시설 공간계획의 구성과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캘리포니아 소재 노인주거시설 10개소를 현지 답사하였다. 각 사례를 통해 본 미국의 노인주거시설은 공용공간 및 개별공간의 종류가 다양하고 생활지원서비스가 확대되고 있으며, 또 공간구성 면에서도 정원이나 여러 공용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커뮤니티가 형성되도록 유도하고 있었다. 이영심과 이상해(2002)는 저소득층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노인층은 생계문제 뿐 아니라 건강, 의료보장, 주거, 역할 상실, 여가시설의 접근성 등 여러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저소득층 노인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들의 경제적, 신체적 상황 등 복합적인 상황을 고려한 질적 면에서의 시설 개발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그 예로서 호주 멜버른의 저소득층 노인주거시설 17개소의 건축계획, 운영체계, 설비, 거주노인들의 생활 측면을 사례 분석하였다. 노년기에는 가족, 친구, 이웃 등 비공식적인 지지체계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짐에 따라 노인시설은 노인들이 거주해온 지역사회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공급하며, 심리적인 영향을 고려하여 일반주택과 비슷한 외관과 소규모로 계획하여 노인들이 서로 돌보는 지원체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며, 거주노인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던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하였다.

노인주거계획을 다룬 연구로서 김양현과 홍형욱(2005)은 건강상태가 양호한 노인이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된 노인공동생활주택 개발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서울 및 수도권 거주 예비노인(40-66세) 600명을 대상으로 개인개발자형과 공동개발자형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한 후 현 주거사용경향을 비교한 결과 코하우징 형태의 공동개발 선호 집단이 수적으로 훨씬 더 우세하였으며, 개인개발 선호 집단보다 경제적 능력이 더 상위였다. 즉, 노후 설계 및 노후주거선택에서 중요한 변수가 경제적 능력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한국형 노인공동생활주택의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정부가 실용형과 고급형의 금융, 세제, 공유공간 용적율 인센티브 등을 제도적, 차별적으로 지원해야한다고 주장하였다. 홍형욱과 유병선(2003)은 사회활동이 가능한 노인들에게 적절한 일과 여가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계획주거로서 노인공동생활주택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50대 중년층 중 일과 여가에 대한 태도에 따라 사회적, 여가적 프로그램이 지원 가능한 노인공동생활주택에 대한 선호와 관리방식에 대한 선호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전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노인주거는 노인복지를 위해 정책적으로 지원되어야 할 필요성이 자주 언급되고 있다. 신화경과 이준민(2008)은 문헌연구방법을 통해 우리나라의 노인주거지원정책을 선진국과 비교한 결과 선진국의 ‘aging in place’ 개념과 같이 하드웨어 측면의 노인주거 인프라와 소프트웨어 측면의 노인복지서비스 프로그램이 적절히 조화되는 지역사회 중심의 윈스톱 서비스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또 현재 주택의 개조기준을 마련하여 노인의 재가지원정책으로 발전하고 있는 점이나 노인부양가족에 대한 용자금 할증, 저리의 금융지원혜택, 소득세 감면, 직계존

속 부양자 주택 우선 공급제도 등을 보완하는 지속적인 지원 등 종합적인 노인주거지원정책을 제안하였다. 객인숙(2003)은 미국의 노인주거대안과 서비스에 대한 탐색을 통해 얻은 시사점을 우리나라 상황에 맞게 적용 가능한 정책으로 제안하였는데, 현재의 노인복지정책은 일부 저소득층 노인에게만 지원되므로 다수의 노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노인의 건강상태나 경제적 부담능력을 고려한 다양한 주거대안으로 건강하고 경제력이 있는 노인이 취미생활을 즐길 수 있는 은퇴촌, 자발적인 공동생활을 위한 코하우징이나 그룹홈, 자신의 집에서 살기를 원하는 노인에게는 개조주택 등이 지원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홍형욱과 지은영(2004)은 노인이 지역사회에서 계속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주거서비스의 개발방향으로서 기존의 주택을 개조할 수 있는 리모델링 프로그램과 수리서비스, 주거비 보조와 개조비용 지원과 같은 직접적인 주택금융·재정지원 서비스, 무료 주택 상담·정보제공 서비스, 지역정보장치 서비스 등을 제시하였다.

그밖에 노인전문요양시설 및 반의존 시설주거 등 다양한 노인주거대안에 대한 탐색적 연구들(이민아, 2004; 권오정, 2004)이 있으며, 노인주거분야의 연구에서 채택되는 다양한 연구방법을 반영하는 연구(지은영·홍형욱, 2002)도 시도된 바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노인주거연구는 인구구성비와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라 다양한 주제를 다루어 왔으며, 연구주제에 따라 현지 답사, 사례 연구, 문헌 고찰 등 다양한 접근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노인부양이 자녀에게 맡겨지기 보다 노인 자신이 선택하거나 국가의 지원 하에 이루어짐에 따라 다양한 노인주거대안이 개발되어 있는 선진국의 사례를 탐색하여 우리나라의 노인주거의 개발 및 계획에 시사점을 주는 연구방식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특징을 보인다.

#### 4) 노인경제연구

노년기의 경제적 취약성으로 인해 노인가계의 경제적 구조를 분석한 연구가 다수 이루어져 왔다. 성영애·양세정(2001)은 노인가계의 소득, 소비지출, 자산 및 부채를 중심으로 경제구조를 분석하였다. 노인가계의 소비지출규모는 매우 낮은 수준이고 보건의료비의 지출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노인가계 중에서도 부부노인가계의 소득수준이 가장 높았으며, 자녀동거노인가계는 단독노인가계보다 경제적 상태가 나은 편이고 여성단독노인가계가 가장 취약한 상태였다. 따라서 노인가계별로 세분화된 노후설계가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정순희·김현정(2002)은 노인가계의 재정충분성을 소득, 지출, 자산충분성으로 조사하였는데, 비취업노인가계가 소득과 지출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재정충분성도 낮은 상태에 있어, 노인가계의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취업증대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희숙·신상미(2003)는 은퇴노인가계의 경제구조를 소득과 지출의 충분성과 최저비상금 유무로 보았는데, 은퇴노인가계소득의 37.1%가 이전소득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 경제적 의존도가 높음을 보여주며, 소비지출 중 식비의 비중이 42%로 낮은 경제적 상태를 반영한다고 보았다. 또 소유자산의 90%가 실물자산으로 유동성이 낮은 재무구조를 보여준다. 성영(2000)은 노인가계를 유배우 노인가계, 남아 노인가계, 여자 노인가계로 나누어 비교한 결과 소득, 자산, 소비지출의 세 측면에서 모두 유배우 노인가계의 경제복지정도가 무배우가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또 총소비지출액은 여자 노인가계에서 가장 낮았다.

여운경(2003)은 급격한 소득감소를 경험하게 되는 노년기의 경제적 복지상태를 평가하는데 소비지출

이 소득보다 더 정확한 지표로 보고 노인가계의 소비패턴을 비교하였다. 노인부부가계와 노인독신가계의 소득, 과소비행동, 순자산, 교육수준은 두 집단 모두에서 소비지출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었다. 양세정(2000)도 1인당 소비지출규모에 있어 노인가계가 비노인가계에 비해 많이 지출하는 비목은 주거비, 광열수도비, 보건의료비, 기타소비지출이며, 지출구성비에 있어 노인가계는 식료품비, 주거비, 광열수도비 등 필수소비비목에 대한 지출비중이 높았고, 노인단독가계와 노인부부가계의 소득과 소비지출에 큰 차이가 있음을 보고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에서 노인가계는 비노인가계에 비해 경제적으로 취약한 집단임이 입증된 한편 소득 및 지출규모에서 노인가계 내의 편차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노년기를 대비한 재무관리행동에 관한 연구로서 박진영과 박선미(2006)는 2003년 노동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적정수준의 노후생활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소득수준에 따른 투자자산규모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김성숙(2008)은 2005년 1차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자료 중 은퇴하지 않은 50세 이상 가구원 표본을 사용하여 가입연금구조에 따라 노후대비방법을 유형화하고, 사적 연금 가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가입유형으로는 공적연금과 퇴직금을 보유한 유형이 22.8%로 가장 많으며, 공적연금만 가입한 유형 15.2%, 공적연금, 퇴직금, 개인연금 세 가지를 모두 보유한 유형 6.9%로 분류되었다. 개인연금 가입 결정요인을 분석한 결과 예적금을 납입하는 경우 개인연금을 가입하지 않은 경향이 있고, 저축성보험을 불입하거나 금융자산총액이 증가할수록 개인연금에 가입할 가능성이 높아 예적금과 개인연금 간에 대체관계가, 저축성보험과는 보완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였다. 양세정·이성림(2009)은 한국투자자교육재단의 2007 펀드투자자조사의 원자료를 분석해 20세에서 65세까지의 성인 중 노후대비를 하는 대상자의 재무관리수단으로 공적 연금과 같은 1층과 개인연금 등 3층 수단에 주로 의존하고, 퇴직금이나 기업연금 등의 2층 수단의 의존도가 낮은 특성을 보인다. 3층 수단 중에서는 개인연금이 가장 우선적이었고, 그 다음으로 펀드 가입을 통한 공격적인 자신증식방법을 통해 노후대비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손주영(2006)은 노인가정의 경제적 특성에 기초하여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내기 위한 재무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노후생활에 대한 이해, 소득증대방안, 안전한 자산증식방안에 대한 내용으로 3회기의 교육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실시한 후 평가한 결과에 의하면 노후생활 및 재무관리 인식 정도가 향상됨으로써 재무교육의 필요성을 시사하였다.

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책으로 직업활동은 노인의 심리적 복지감 및 성공적 노화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이라는 관점에서 노인의 취업활성화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전지원과 박미석(2006)은 고령화로 인한 사회경제적 문제를 앞서 경험한 선진국들의 대표적인 대처방안으로 적극적 고령화(active aging), 즉 고령인력의 활용을 통한 노동공급의 유지, 확보를 제시하고 있다. 노인의 직업활동 참여는 심리적 복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고령사회의 생산적 노인복지 실현에 효과적인 대책이라는 관점에서 6개월 이상 직업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60세 이상 남녀노인을 대상으로 직업활동 참여동기와 직업만족도 및 심리적 복지감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노인의 심리적 복지감은 직업만족도에 의해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 노년기 직업활동의 의의를 확인하였다고 하였다. 황진수 등(2001)은 고령자 취업 활성화 방안으로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 개발 및 직업훈련의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고령자가 취업을 중단한 주요이유로서 ‘육체적으로 힘들어서’와 담당자가 애로점으로 ‘직종의 단순화’를 지적한 결과를 통해 고령자를 위한 직종이 다양화되어 개인적으로 적합한 직종에 대한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 선택해야 하며, 또 취업에 앞서 직업훈련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무엇보다 고령인력의 취업활성화를 위해서는 행정적, 법적 제도가 동시에 강화되어야 한다고 하였는데, 고령자 취업정책은 시장원리에 맡길 수 없는 분야로, 오히려 정부의 ‘생산적 복지’의 궁극적 목적에 부합하는 정책이기 때문이다. 김동배 등(2004)은 노인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해 60세 이상 노인을 면접조사한 결과 대상자의 4/5가 취업을 희망했고, 희망하는 가장 큰 이유는 생활비 부족 등 경제적 이유였다. 희망하는 취업형태를 세분화해 보면 다수인 44%가 단순경제형의 일자리를 원했으나, 남성이나 교육수준이 높은 노인의 경우 전문성취형, 전문경제형에 대한 욕구도 높았다. 교육수준이 낮고, 여성이며, 취업관련능력이 매우 부족한 노인에게는 특별한 관심이 요구되는 한편 남성이며 학력이 높은 노인들에게는 사회참여활동이 보장된 직업능력개발 프로그램과 직종 개발이 요구된다. 즉, 노인의 직업능력개발 프로그램으로는 기본적인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노인 개인의 욕구와 상황에 따라 개별화된 맞춤형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 3. 연구방향의 제안

지금까지 축적된 연구주제와 결과를 통해 앞으로의 연구 방향을 분야별로 제시하면, 여가시간 및 여가활동참여도의 선행연구에서 밝혀진 경향을 볼 때 여성노인, 저학력 노인, 무배우 노인의 여가활동 참여도가 낮고 소극적인 유형에 집중되어 있다. 또 여가활동참여도의 영향요인 분석 결과에서도 고령, 저학력,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나 건강상태가 나쁜 노인집단은 여가제약이 많은 상태에 있음을 시사하는데, 이는 여가에 대한 불만족과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고령화 사회에서 평균수명이 더 높은 여성노인의 경우 낮은 학력, 무배우, 저소득 등의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취약한 여가집단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노인정, 노인복지회관 등의 시설에서 여가취약집단을 위한 여가프로그램을 강화시켜 운영해야 할 것이다. 또 선행연구에서 지적되었듯이 앞으로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초기노인과 후기노인 등으로 연령대가 폭넓어짐에 따라 건강상태, 배우자유무, 학력, 여가선호나 취향 등의 개인적 상황도 매우 다양해질 것이다. 따라서 노인이 자신의 상황과 선호에 따라 여가를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여가프로그램이 준비되어야 할 것이다. 이때 각 시설 및 기관의 여가프로그램의 중복성을 피하기 위해 지역이나 시설별로 프로그램을 특화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다. 또 노인시설 여가프로그램의 단기성과를 지양하고 장기교육의 형태로 전환되어야 하며, 노인들도 자신의 여가선호를 파악하고 새로운 여가능력을 개발하는 적극적인 여가태도로 노년기를 대비해야 할 것이다. 즉, 노년기 여가활동은 일상생활의 한 부분으로서 접근해야 하며, 이를 위해 노인 개인의 의식 전환과 정부의 투자가 필요하다. 또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여가프로그램의 다양화, 지역 및 시설에 따른 특화, 장기적이고 교육적인 여가프로그램 개발, 여가교육 및 여가수요에 대한 조사 등의 연구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급속한 고령화와 노인단독가구가 증가하면서 노인의 주거문제는 하나의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노인의 최저의 삶을 보장하기 위한 노인주거지원정책이 노인복지정책의 주요 분야로 부각되고 있으며, 앞으로 노인의 소득 향상, 노인시설에 대한 수요, 노인시설의 다양성에 대한 욕구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노인들을 위한 다양한 주거환경의 제공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러한 배경에서 외국의 다양한 노인주거대안을 답사하고 심층면접하는 선행연구들이 이루어져 왔는데, 연구에서 얻은



시사점을 우리나라 시설에 적용할 때 필요한 우리나라 노인의 신체적 조건과 특성이나 정서적 특성 및 문화적 특성 등에 대한 기초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 선행연구에서는 서비스주택, 노인공동생활주택, 반의존 시설주택 등 새로운 유형과 함께 ‘aging in place’의 개념을 적용한 현재주택의 개조 및 서비스 지원방식 등 다양한 주거대안이 제시되었다. 즉, 노인주거시설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지원되던 방식에서 경제력과 건강을 갖추고 다양한 생활서비스와 여가서비스를 원하는 중산층을 위한 노인주거대안이 개발되는 단계에 있으므로 주거대안과 서비스유형에 대한 수요 조사가 필요하다. 또 노인주거는 건강하고 경제력이 있는 중년기부터 스스로 계획하여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중년층을 대상으로 한 수요와 시설 및 서비스에 대한 요구도 조사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노년기에 가장 필요한 준비가 경제력이라는 일반적인 인식과 함께 노년기에는 소득이 현저히 감소하거나 중단되므로 노년기를 위한 경제적 준비는 가장 강조되어 왔다. 그러나 그 중요성에 비추어볼 때 노인경제에 대한 연구는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 노인가계의 경제구조연구에서 밝혀진 바로는 노인가계의 경제적 구조 및 소비지출의 실태는 취약한 상태였으며, 이를 개선하는 방안으로 노인의 취업이 제안되고 있으나 고령자 취업은 시장원리에 적용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진다. 이러한 노인의 경제적 취약성, 노인취업의 한계로 인해 노인경제의 연구대상이 제한될 수 있다. 또 노후를 위한 경제 계획은 노년기 이전부터 시작되어야 하므로 노인이 아닌 성인 대상 재무관리의 일환으로 연구되거나 중단적 연구방법이 더 적합한 특성으로 인해 연구에 제약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연금수혜나 경제적 준비수준에 따라 신노년층의 경제적 격차는 현재보다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연금수혜에 따른 노인가계의 재정충분성, 종신보험이나 주택모기지 등 금융상품 활용에 따른 경제구조의 개선 등 새로운 연구주제를 시도해야 할 것이다. 또 노인의 취업능력개발을 위해 노인들 개개인의 욕구와 상황에 맞추어 기본적인 직업능력개발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전문육구에 따라 개별화된 맞춤형 프로그램도 노인경제연구분야에서 개발, 제안되어야 할 것이다.

분야별 연구 이외에 통합적 시각에서 접근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선행연구에서도 노후주거선택의 중요변수가 경제력으로 나타남으로써 노후계획에서 경제계획과 주거계획이 분리될 수 없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 또 노년기에 불충분한 노후생활자금이나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주택자산을 담보로 한 주택모기지 제도를 선택하려면 개별가계에서도 재무관리와 주거관리의 측면을 모두 고려해야 하듯이 두 분야에 대한 통합적 시각이 필요하며, 노인을 위한 은퇴촌과 같은 주거는 물리적 공간의 기능이외에 여가활동의 장소이며 사회적 활동을 대체하는 교류의 공간이므로 이러한 노인주거대안은 여가프로그램과 함께 계획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여성노인가계나 고령노인, 무배우 노인집단이 취약한 경제구조 하에서 선택 가능한 주거대안이나 여가대안은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통합적인 관점에서 취약계층노인의 복지를 위한 정책적 지원의 한 방안으로 연구되어야 한다. 앞으로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른 다양한 노인집단의 출현 가능성을 고려할 때 노인의 개인적 배경과 욕구에 따라 적극적으로 자신의 자원을 사용하고 관리하는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노인주거시설, 여가프로그램, 재무관리, 직업능력프로그램 등의 다양화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노인의 주거와 여가, 경제는 모두 생활의 질에 기여하는 자원이며 관리의 대상으로 통합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분석하는 것이 더 유용하고 의미 있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 [참고문헌]

- 곽인숙(2003). 미국의 노인을 위한 주거대안과 서비스의 특성을 통해 본 한국의 노인주거정책에 대한 제언,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1(6), 81-96.
- 권오정(2004). 반의존 노인용 시설주거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 -미국 버지니아 주 농촌지역의 우수 노인생활보조주택 관리사례를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6), 27-46.
- 김동배 · 이윤화 · 안인경(2004), 노인의 소득장출을 위한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24(1), 107-127.
- 김성숙(2008), 3층 노후소득보장의 관점에서 본 가입연금구조와 개인연금가입의 결정요인, 제 1회 국민노후소득보장패널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118-132.
- 김성연 · 박미석(2000), 도시노인의 여가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8(1), 67-84.
- 김양현 · 홍형욱(2005), 노인공동생활주택의 선호개발유형에 따른 주거사용 특성,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3(5), 133-143.
- 문숙재 · 곽민진(2002), 노인의 실버산업 이용실태에 관한 연구 -여가서비스를 중심으로, 한국 가족자원 경영학회지, 6(2), 97-118.
- 박미석(2002), 노년기 여가만족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0(5), 133-146.
- 박미석(2002), 우리나라 노인의 은퇴 후 여가선용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2(12), 107-1.
- 박미석(2005), 서울시 시설 거주 노인의 여가프로그램제약정도와 여가생활만족도, 대한가정학회지, 43(4), 203-223.
- 박미석 · 이유리(2003), 한국 노인의 여가활동시간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1(1), 37-48.
- 박진영 · 박선미(2006), 노인가계의 적정소득 인지에 따른 투자활동에 관한 연구, 2006년 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 겨울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85-92.
- 손주영(2006), 노인 재무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실시,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0(4), 125-144.
- 신영숙(2000), 내 집과 같은 노인시설주거 디자인 특성에 관한 연구(1) - 미국의 노인 서비스주거시설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8(11), 165-179.
- 신화경 · 이준민(2008), 고령사회 노인주거지원정책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6(5), 15-25.
- 양세정 · 이성림(2009), 노후 경제적 대비 여부에 따른 가계경제의 차이와 재무관리행동,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7(1), 1-16.
- 여윤경(2003). 노인부부가계와 노인독인가계의 소비패턴 비교,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1(5), 1-12.
- 오혜경 · 홍이경 · 박민진(2003). 미국 노인주거시설의 공간구성특성에 대한 연구 -캘리포니아 지역을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1(5), 107-115.
- 이기영 외(2006), 고령화 사회 농촌노인의 노동과 여가의 시간배분,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0(1), 131-148.
- 이민아(2004). 노인전문요양시설의 일상생활 지원서비스 작업흐름 분석 -식사 및 목욕공간을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6), 1-18.
- 이영심 · 이상해(2002), 호주 멜버른 지역의 저소득층 노인주거 사례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0(1),

103-114.

- 이유리·박미석(2006). 무료양로시설 거주 노인의 여가와 삶의 질에 관한 생태학적 연구-구조방정식모형 구축을 통해-. 대한가정학회지, 44(11), 117-131.
- 이운정(2003), 노인 여가의 기능과 여가자원에 관한 문헌고찰,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7(2), 117-130.
- 이운정·정순희(2004), 노인의 여가생활시간 소비패턴 분석,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8(1), 101-118.
- 전길양·송현애·고선주·김일명(2000), 노년기 준비교육 프로그램 -풍요로운 노후 가꾸기, 한국노년학, 20(1), 69-91.
- 전지원·박미석(2006), 노인의 직업활동 참여동기, 직업만족도 및 심리적 복지감에 관한 인과모형 분석, 한국노년학, 26(3), 521-545.
- 지은영·홍형욱(2002), 노인주거 연구의 접근방법과 쟁점,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0(5), 137-147.
- 최보아·지영숙(2004). 은퇴자의 생활설계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6), 47-82.
- 최성재(2009), 수도권 지역 중년기 이후 세대의 노후생활인식과 노인에 대한 인식, 한국노년학, 29(1), 329-352.
- 허준수(2002), 도시노인의 여가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22(2), 227-247.
- 홍성희·이경희·곽인숙·김순미·김혜연·김성희(1997), 노년기 생활설계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노인의 생활문제인지와 생활계획의 분석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5(3), 151-169.
- 홍형욱·지은영(2004). 지역사회보호체계를 위한 수요자와 복지서비스 전달자의 노인주거서비스 요구도 -노인공동생활주택 개발을 위한 지역사회보호의 체계화-,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2), 1-12.
- 홍형욱·유병선(2003). 노후의 일·여가태도에 따른 노인공동생활주택 선호 경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1(5), 13-24.
- 황진수·최성재·김태현·이가옥·유성호·변재관(2001), 고령자 취업 활성화 방안, 한국노년학, 21(1), 93-118.



## 노인연구 활성화를 위한 연구성과 분석

김 연 화(숙명여대 강사, (사)청년여성문화원원장)

홍교수님의 연구 서론에 제시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빠른 고령화 속도와 부모부양의식의 약화 등의 상황을 고려할 때 노후 준비는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통계청의 2006 장래인구 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인인구는 2010년 16%에서, 2020년엔 23%, 2030년에는 32%, 2040년에는 39%, 2050년에는 43%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2018년을 전후해 6~19세 아동·청소년 인구를 추월하고, 2030년 노인 인구는 1181만명을 기록, 아동·청소년 인구(532만명)의 2배, 2040년에는 노인 인구가 더욱 늘어 3배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노인을 부양하는 인구 비중이 2010년에는 55%, 2020년에는 53%, 2030년에는 48%, 2040년에는 42%, 2050년에는 39%로 변화, 2040년에는 1명이 혼자 떨어져 최소 2명을 부양해야 하는 노인인구비율이 높은 사회가 도래할 것이라 한다. 인류의 평균수명의 연장과 노년기의 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노인의 건강, 경제, 교육, 인간관계, 삶의 질 등에 대한 자원관리 및 노인여가프로그램 등은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

이러한 시점에서 홍교수님의 노인연구 활성화를 위한 연구성과 분석은 가정관리학의 노인 분야 연구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며, 앞으로 실천학문의 가정관리학의 노인연구, 노인시설 프로그램 및 노인정책개발 기초자료 제공에도 기여할 연구라 생각한다.

본 논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몇 가지 토론사항을 정리해 보고자하며, 이 논문의 연구성과 분석을 토대로 앞으로 가정관리 분야의 노인과 노인가족의 건강성 향상 및 문제예방적 측면을 고려하여 논의해 보고자 한다.

먼저, 2000년 이후 노년기 연구분야의 주제어 검색을 통해 노인연구를 통합적 연구, 노인여가연구, 노인주거연구, 노인경제연구 등으로 대별하여 분석한 점은 의미가 있다. 그러나 노인복지나 다른 학문 분야의 노인연구를 조금 더 고찰하여 가정관리학에서의 노인연구 분석과 비교분석도 보완해 노인연구의 방향성을 제시한다면 더욱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둘째, 기존의 연구고찰을 통해 노년기 연구는 통합적 연구보다는 노인여가행동에 대한 연구가 많으며 분야별 연구가 더 활성화되어 왔다는 데 공감하며, 통합적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도 지지한다. 2010년 11월 순창군이 서울대노화고령사회연구소에 의뢰해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2009년 11월부터 2010년 11월까지 1년 동안 실시한 ‘2차년도 노화중적관찰을 위한 장수지역사회 코호트조사 분석 결과를 발표하였다. 그 결과 건강장수의 모델은 “긍정적인 생각과 지속적인 운동, 육체적인 활동과 꾸준한 공부, 고른 영양섭취와 구강관리를 하며 따뜻한 가족관계를 통해 정신건

강이 안정된 노인”인 것으로 나타난 점, 그리고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신체활동을 증가시키고, 인지기능을 높여 자기의 만족감을 고취, 가족 상호간 의지를 강화시켜 사회참여의식을 높이고 유도해야 한다는 결과를 내 놓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노인기 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통합적 자원 확보와 서비스가 중요함을 고려할 때 가정관리학에서는 통합적 생활설계, 노후 생활인식 및 교육 프로그램개발 및 연구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다학제간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노인여가 연구결과분석에서 노인여가는 노인기 생활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재로 작용하기에 적극적인 여가태도와 여가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여가교육과 시설이 필요하며 여가시간, 여가활동 관련 연구결과 여성노인, 저학력 노인, 무배우 노인의 여가참여 활동정도가 낮고 소극적이기에 여가취약집단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운영과 장기적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여가프로그램 다양화, 지역 및 시설에 따른 특화, 장기적이고 교육적인 여가프로그램 개발, 여가교육 및 여가수요에 대한 조사연구가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를 좀 보완한다면 여가취약계층은 고학력, 젊은 노인도 앞으로 될 수 있음을 고려하고, 여가와 사회적 기여를 희망하는 층도 증가함을 고려하여 노인복지관 자원봉사센터, 기타 시설에서 실시하고 있는 노인여가와 자원봉사 프로그램 분석 및 활성화 방안을 위한 좀 더 구체적인 연구가 우리 전공에서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넷째, 노인주거시설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지원되던 방식에서 경제력과 건강을 갖추고 다양한 생활서비스와 여가서비스를 원하는 중산층을 위한 노인주거대안이 개발되는 단계에 있으므로 주거대안과 서비스유형에 대한 수요 조사가 필요하다. 또 노인주거는 건강하고 경제력이 있는 중년기부터 스스로 계획하여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중년층을 대상으로 한 수요와 시설 및 서비스에 대한 요구도 조사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은 지지한다. 이에 현재 도시, 시군구 등을 고려하고 지역에 마을회관이나 아파트 단지내 경로당 프로그램 시설 등을 보완한 노인커뮤니티 공간마련 및 지역사회연계 프로그램 관련 조사분석 연구나 모형개발 연구도 필요할 것이다.

다섯째, 연구결과에서 노인가계는 비노인가계에 비해 경제적으로 취약한 집단임이 입증된 한편 소득 및 지출규모에서 노인가계 내의 편차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노인의 취업능력개발을 위해 노인들 개개인의 욕구와 상황에 맞추어 기본적인 직업능력개발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전문교육에 따라 개별화된 맞춤형 프로그램도 노인경제연구분야에서 개발, 제안되어야 할 것이다. 노인여가와 일자리창출을 위한 사회적 기업관련 연구도 기대해 본다.

앞으로 노인인구증가와 다양한 노인집단을 고려하여 다양한 노년기 가족의 가족자원관리에 대한 통합적 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 시설확충, 정책개발 기초자료를 위한 지속적 연구가 기대된다. 그리고 60대 노인과 80대 노인을 동일집단으로 보는 점을 고려하여 노년층 세분화한 연구가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베이비 붐 세대의 일과 자원봉사를 통한 사회참여, 노후준비와 노후준비교육에 대한 연구와 더불어 중년기를 위한 통합적인 노인생활설계 프로그램, 다양한 세대통합 프로그램, 여가와 예술놀이, 상담, 운동, 자원봉사, 사회적 기업 등에 대한 연계연구도 해야 할 것이다.

이에 앞서 노인기 삶의 질 향상과 전공의 활성화를 위해 전공학생을 위한 노인관련기관 전문인력양성안 모색, 가정내 학제간 연구가 활성화되어야 하며 다른 학문과의 연장영역으로서의 학문간 통합적 연구, 나아가 노인관련기관종사자, 정부 기관종사자 등과 민·관·학 연계한 노인연구 및 실천모형개발은 더욱 더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